

시속 100km '쌍쌍' 車전용 제2순환도로 주민들 아찔한 무단횡단

오토바이도 위험 주행

지난 16일 오전 회사원 최모(28)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 효덕~용산구간의 광주대 부근을 지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김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는데 100여m 전방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놀란 최씨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이 멈춰선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사이 길을 건넌 이 여성은 20m 가량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내려가다 분리대를 넘어선 뒤 유유하사라했다.

최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사람이 무단으로 지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송년)터널을 지나올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가 보행자들의 무단횡단과 오토바이 진입 등으로 인해 안전운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 도로를 지나는 대부분의 차량이 제한속도(90km)를 웃도는 100~130km로 운행한다는 점에서 대형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 경찰과 (주)광주도로관리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민들이 2순환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속 강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이 달린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도로관리회사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도로관리 관계자는 "효덕~용산구간의 경우 도로 옆 야산을 오르내릴 때 순환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례가 간혹 있다"며 "인근 복지시설 수용자들도 무단횡단 사례가 있어 계도



(주)광주도로관리 직원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 효덕~용산구간을 무단횡단하던 여성 보행자를 걸길로 인도하고 있다(위). 아래는 효덕~서창구간을 무단 진입해 달리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순환도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매일 아침 아무런 사전 경고나 안내 표지 없이 수시로 미화원들이 갖길이나 도로를 드나들기 때문이다.

김모(29)씨는 "매일 아침 8시쯤 서창에서 봉선동 쪽으로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데 중앙분리대 인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불쑥불쑥 나타난다"며 "커브길을 돌 때는 미화원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잔뜩 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순환도로에 진입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아 대형 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거리가 가까운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는 게 도로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주)광주도로관리 송상훈(42) 실장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2~3명 가량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봄철에는 도로를 건너 인근 야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는 주민도 늘어나 항상 축착을 끈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29)씨는 "매일 아침 8시쯤 서창에서 봉선동 쪽으로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데 중앙분리대 인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불쑥불쑥 나타난다"며 "커브길을 돌 때는 미화원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잔뜩 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檢, 저작권침해 청소년 한번은 봐준다

음악파일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들에게 '한 차례' 관용을 베푸는 구제책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

는 내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2006년 611명(약식기소 31명)에서 2007년 2천832명(76명), 2008년 2만3천여명(207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저작권자협회와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끝없는 애도 물결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추기경 추모미사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기리는 추모 열기가 주말에도 뜨겁게 이어졌다.

김 추기경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미사가 명동대성당을 포함한 전국 1천800여 개의 각 성당과 김 추기경의 묘소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주말을 맞아 김 추기경의 추모미사가 열린 명동대성당과 경기도 용인 성직지역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2일 낮 12시 서울 명동대성당에서는 김 추기경 장례의 교황특사인 정진석 추기경이 정오에 추모 미사를 집전했으며, 성직자 구역에서도 약 2천500명이 모여 염수정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의 주례로 미사를 올렸다.

명동대성당 미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인원

800여 명을 훨씬 넘는 1천200여 명이 들어와 통로를 가득 메웠으며, 성당 앞 마당에도 신자들이 몰려 대형 모니터를 통해 미사를 보는 등 모두 2천8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추기경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메시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해준 모든 분과 빈소를 찾아주시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김 추기경이 남긴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잘 새겨 가톨릭 교회가 평화와 사람이 흘러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교구는 21일 낮 12시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주교좌 임동성당에서 추모미사를 거행했으며 22일에는 각 성당별로 추모미사가 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해남 만의총서 신라 토기 발굴

5~6세기 토우 장식 술병 국내 첫 출토

동신대문화박물관

해남 만의총에서 신라 양식의 토우(土偶)로 만든 인물상) 장식 서수형토기(瑞獸形土器·술병·사진)가 국내 처음으로 발견됐다.

또 백제, 신라, 가야, 일본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돼 이곳이 당시 해상 무역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신대문화박물관은 22일 "만의총 1호분을 발굴한 결과, 목관과 석곽묘에서 토우 장식 서수형토기 1점, 가야의 유개대부발(안주를 담은 토기) 1점, 일본계의 조개팔찌 1점 등 모두 1천1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퓰로로 감산 청동거울 1점, 청동팔찌 1점, 곡옥 1점, 금장식된 소형의 청동곡옥 6점, 관옥 6점, 기타 금제장식 17점, 구슬 등이 출토됐다. 무기류로는 철검 1점, 철촉 27점 등이 나왔다.

한편 5~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만의총은 정유제란 때 희생된 의병을 재차 매장한 복합 유적이다. 당초 6기의 고분이 있었으나 경지정



리 등으로 현재 3기만 남아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사건·사고 재외공관 도움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가 23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록제는 여행자가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여행일정과 연락처 등을 기입해 두면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0분 해질 18시 22분 달돋이 06시 02분 달질 16시 41분

구름 뒤에 숨은 태양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3/14C, 목포 3/12C, 여수 5/10C, 완도 5/12C, 구례 3/13C, 해남 5/13C, 장흥 5/13C, 순천 4/11C, 영광 3/12C, 진도 5/12C, 진주 2/13C, 남원 2/13C, 옥산도 5/9C

Table with 5 columns: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Rows include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최저/최고 3/14 1/12 1/11 2/8 1/9 0/9

황사 전남, 수도권 보다 발생 적고 농도 낮다

전남지역은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황사 발생 빈도가 낮고 농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상청 황사센터 자료에 입력된 최근 3년간 서울과 전남 등 주요 도시 황사발생 일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남의 황사발생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서울에서 11일, 인천에서 9일간 황사가 발생한 데 비해 목포는 6일, 여수 5일, 순천 1일로 전남지역 황사발생 일수가 현저히 적었다. 또 2007년엔 서울 12일, 인천 13일에 비해 목포 9일, 여수 7일이었으며 2006년엔 서울 11일, 인천 11일에 비해 목포 10일, 여수 6일, 순천 8일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지역이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황사 발생일이 적은 것은 지리적으로 주요 황사 발생지역인 내몽골과 고비사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 중 내몽골과 고비사막에서 발생

하는 황사는 70%가량이며, 여기서 발생한 황사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 북쪽지역에서부터 사선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동해 중부에 비해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황사가 덜게 나타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사 발생 농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일 전남에서 발생한 황사 발생 농도는 흑산도 377µg/m³, 진도 316µg/m³ 등으로 강화 763µg/m³, 서울 755µg/m³, 관악산 663µg/m³, 춘천 604µg/m³, 백령도 510µg/m³, 수원 348µg/m³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짙은 농도의 황사는 사람의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알레르기 질환이나 천식 환자 등은 기도 협착이나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고, 마스크가 없다면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기자 redplane@

광주원광은행 신협. 사업자 2,000만원까지 대출. 신원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055

이태리 가구 & 장식품. 광주 롯데백화점 8층. 입점 행사 50% OFF. 스페이스 TEL. 326-7567